

지피식물 식재 현황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Studies on the Planting Status of Ground Cover Plants

- Focused on the Daegu Metropolitan City -

홍민영¹ · 김용식²

¹영남대학교 대학원 · ²영남대학교 자연자원학부

I. 연구목적

조경공간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인 식물은, 성목시의 수고에 따라 교목(Tree), 관목(Shrub), 덩굴식물(Vine), 지피식물(Ground Cover Plants)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지피식물은 수목 위주의 식재가 이뤄지는 조경분야에서 그 이용이 매우 미약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초부터 하층식재의 부족이 인식되면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1991년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대단위 신도시 공사를 통해 이용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지피식물은 다양한 이용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조경소재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식재되고 있는 지피식물에 관한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에 식재된 지피식물 식재현황 조사를 통한 대구시의 지피식물 식재현황을 분석하며, 앞으로 지피식물식재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대구시 8개 행정구역인 남구·달서구·동구·북구·서구·수성구·중구·달성군 가운데 94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표 1) 독립녹지는 도시공원법상의 어린이공원, 균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가운데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도시자연공원과 균린공원, 체육공원을 대상으로 조성이 완료된 곳을 선정하였으며, 균린공원은 균린생활권·도보권·도시지역권·광역권 균린공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경상북도 경산시와 대구의 행정구역상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성서지구를 이어주는 대구의 중심도로인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 와룡로, 호림로,

서재로에 식재되어 있는 지피식물도 조사하였다.

표1. 연구 대상지

행정구역 대상지	동구	중구	수성구	북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합계
공원	4	4	5	10	2	0	24	2	51
관공서	1	3	1	0	1	1	2	0	9
공화당	0	0	3	2	0	0	1	0	6
문화시설	0	0	1	0	0	0	2	0	3
병원	1	2	0	0	0	1	0	0	4
교통시설	4	1	0	1	1	0	0	0	7
병목대	1	1	5	1	1	1	4	0	14
합계	11	11	15	14	5	3	33	2	94

2. 연구방법

2003년 12월에서 4월까지 예비조사를 하였으며, 2004년 7월과 8월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지의 녹지 공간에 식재되어 있는 지피식물과 환경도 조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94곳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총 61종의 지피식물이 식재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각 장소별 주요 식재종은 다음과 같다.

도시자연공원과 균린공원 체육공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종의 지피식물이 식재되어 있었다. 식재된 수종은 감국, 구절초, 금계국, 꽃범의꼬리, 꽃잔디, 노랑꽃창포, 루드베키아, 매발톱, 맥문동, 메리골드, 백일홍, 별개미취, 별노랑이, 범부채, 봉숭아, 부처꽃, 붓꽃, 비비추, 빙카, 사루비아, 송악, 수호초, 숙근풀록스, 쑥부쟁이, 씀바귀, 애기나리, 옥잠화, 원추리, 제비붓꽃, 작약, 잔디, 주걱비비추, 참나리, 채송화, 코스모스, 콜레우스, 타래붓꽃, 패랭이, 하늘나리, 흰줄무늬비비추이다.

각 구청과 시청을 조사한 결과 관공서 9곳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은 16종으로 매발톱, 맥문동, 메리골드, 별개미취, 봉숭아, 비비추, 빙카, 상록패랭이, 송악, 수호초, 쑥부쟁이, 옥잠화, 원추리, 잔디, 콜레우스, 흰초롱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국 3곳과 전시컨벤션 센터, 유통단지, 성당못 6곳을 조사한 결과 꽃범의 꾀

리, 도라지, 매발톱, 맥문동, 메리골드, 빈카, 수호초, 이질풀, 잔디, 참나리, 투구꽃, 패랭이, 하늘나리가 식재되어 있었다.

문화시설인 대구박물관, 야외음악당, 문화예술회관에 식재된 수종은 감국, 강활, 금테사철, 꽃잔디, 꽃창포, 당귀, 맥문동, 머위, 방풍, 봉선화, 비비추, 삽주, 송악, 작약, 잔대, 지황, 참취, 황기 총 18종이었다.

대학병원인 경북대학교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동산의료원, 파티마병원에 식재된 수종은 15종으로 감국, 매발톱, 맥문동, 벌개미취, 붓꽃, 비비추, 수호초, 옥잠화, 용머리, 원추리, 육카, 잔디, 제라늄, 콜레우스, 할미꽃이었다.

공항과 기차역 버스 정류장 7곳을 조사한 결과 꽃잔디, 맥문동, 옥잠화, 잔디, 송악이 식재되어 있었다.

병목대 하층에 식재 되어 있는 지피식물은 기린초, 꽃범의 꼬리, 꽃잔디, 루드베키아, 맥문동, 비비추, 옥잠화 7종으로 조사되었다.

IV. 결론

대구지역에 식재된 지피식물은 61종으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지피식물 456종 가운데 약 11%가 식재되었으며, 자생지피식물의 식재율은 54%로 이는 조사 대상지 중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6개 공원과 동산의료원, MBC 방송국에 식재된 자생지피식물이 전체 수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두류공원, 동산의료원, MBC 방송국에 다양한 지피식물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대구박물관에는 약초로 이용가능한 자생지피식물을 식재하여 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균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의 경우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6곳의 공원과 월드컵 공원을 제외한다면 옥잠화와 비비추외에는 식재된 수종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지피식물식재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균린공원의 지피식물식재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지피식물 식재시 대구시의 특성에 맞는 지피식물 소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식재함으로써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